

북한지역 국군의 유해소재 분석 및 향후 과제

- 덕천·영원전투를 중심으로 -

吳 洪 國*

1. 들어가는 말
2. 유해발굴사업 추진성과 및 대상 분석
3. 덕천·영원전투 분석
4. 향후 과제
5. 맺 는 말

1. 들어가는 말

올해는 6·25전쟁 발발 60주년으로 국민의 안보의식 확립과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주요전투 재연행사 및 해외참전용사 보은행사, 전적지 순례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 6·25전쟁 국군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은 전쟁 발발 50주년이었던 지난 2000년부터 사업을 착수한 이래 작년까지 남한지역에서 4,133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전쟁기간 중 국군 13만

* 군사편찬연구소 전사연구장교

7천여 명이 전사했고, 3만 2천여 명은 실종 및 포로가 되었다. 이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유해는 불과 2만 9천여 위(位)에 불과한데, 이는 전사자의 유해가 수습되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본가에 봉송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매우 적은 숫자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중 28.2%에 해당하는 3만 9,000여 명이 북한지역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에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용사들의 유해발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동안 남한지역 위주로 추진되었던 유해발굴사업이 북한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각종 기념행사가 전쟁에 대한 아픈 기억을 되새겨 오늘의 교훈을 삼기보다 승전위주의 행사에 치우친 점이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통한(痛恨)의 역사도 기억하고 재음미하는 측면도 필요하다. 유엔군과 국군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이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향하던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순간 중공군의 개입과 공세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다시 38도선 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지역에서 주요전투 중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미군의 군우리 전투, 장진호 전투 등이며, 국군의 운산, 온정리 전투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단일 전투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국군 제2군단 제7사단의 덕천전투 및 제8사단의 영원전투는 비극적인 패배로 인해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다. 이 전투는 1951년 5월, 중공군의 제5차 공세였던 현리전투와 버금가는 많은 손실이 있었다.

이제 북한지역에서의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계기로 덕천 및 영원전투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치욕스러운 패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아픔보다 이름 모를 산하에서 숨겨간 선열들의 넋을 선양하는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유해발굴사업의 추진성과 및 북

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해소재관련자료집』, 2008, p. 398.

한지역에서 유해발굴대상을 먼저 살펴보고 중공군의 제1, 2차 공세 개관, 덕천 및 영원전투를 중심으로 유해소제 분석을 집중 분석해 보았다. 끝으로 향후 유해발굴사업의 과제를 전망함으로써 호국선양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2. 유해발굴사업 추진성과 및 대상 분석

(1) 유해발굴사업 추진성과

보훈선양 정책 측면에서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7년 1월에 서울 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면서 국가 영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신청사 내 첨단시설 및 장비를 구비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유해발굴과 감식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군단급 단위까지 유해발굴 전담요원을 편제화하고 유해발굴단 통제발굴과 군단단위 자체발굴로 구분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유해발굴을 위한 연구는 군과 학계의 관심이 증대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²⁾

먼저, 유해발굴을 위해서는 전사연구, 참전자 증언, 각종 기록 및 제보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 중 주목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6·25전쟁에 관한 많은 연구 중 참전자의 증언은 주로 전투사 위주였음에 반해, 올해는 북한지역의 주요 전투 중 유해발굴을 위한 증언을 청취함으로써 그동안 전사 기록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실제 그 피해 규모와 장소에 대해 어느 정도

2) 2010년 유해발굴사업은 총 38개 부대 1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발굴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유해발굴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이기오, 「보훈선양 정책측면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연구」, 조석근,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함의한 정신적 가치 연구」, 『군사』 제71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해소제 관련 자료집』, 20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유해소제 분석지도(남한/DMZ지역)』, 2009. 등이 있다.

확인할 수 있었다.³⁾ 그리고 일부 언론의 6·25전쟁 관련 특집기사 중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다. 즉 북진기간 중 중국군의 2차 공세기간 중 발생했던 국군 제7사단의 덕천전투에서 전사 기록에는 피해현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참전자의 증언⁴⁾에 의하면 제7사단 5연대의 경우 2개 대대 규모가 전멸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자세한 피해 규모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그동안 유해발굴감식단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작년부터 병력의 집중 투입으로 그 성과가 증가되었는데 지난 10년간 유해발굴성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유해발굴결과⁵⁾

구 분	유 해			유 품(점)
	계(구)	아군	적군	
계	4,133	3,380	753	80,467
2000년~2004년	1,106	957	149	38,210
2005년	203	141	62	3,085
2006년	175	92	83	2,601
2007년	534	378	156	7,575
2008년	837	673	164	12,480
2009년	1,278	1,139	139	16,516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참전자 증언청취록」, 2010년 3월 25일. 증언자들은 대부분 1950년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전투에서 부대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유해를 수습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4) 『조선일보』 2010년 3월 23일자, A8면, 「6·25 60주년, 나와 6·25」, 포로수용소 탈출 성공한 윤정식씨 증언

5) <http://www.withcountry.mnd.mil/>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내용을 기간에 따라 재정리. 2001년~2004년까지는 단일 기간으로 종합하고, 최근 5년 기간은 연도별로 제시했다. 2009년에는 지난 10년간 유해발굴의 30.9%를, 유품은 20.5%를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

(2) 북한지역 유해발굴대상 분석 및 제한사항

6·25전쟁의 인적(人的)·물적(物的) 피해는 실로 막대했다.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치른 전란 중 가장 처참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당시 남북한 인구 3,000만 명의 절반을 넘는 1,800만여 명이 피해를 입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멈추어진 전쟁이었다.⁶⁾ 이후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최근에서야 남북한 쌍방은 전쟁시기의 유해발굴문제를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했다.⁷⁾ 그런데 북한지역 유해발굴 사업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 대상자가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전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대량 피해 지역은 어떻게 그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개된 6·25전쟁과 관련된 각종 현황을 먼저 분석해 보고 제한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표 2〉 6·25전쟁 기간 중 각종 피해 현황

○ 한국군 및 UN군 피해 현황⁸⁾

구 분	계	전사	부상	실종/포로
계	776,360	178,569	555,022	42,769
한국군	621,479	137,899	450,742	32,838
UN군	154,881	40,670	104,280	9,931

6) 남정옥 외, 『알아봅시다! 6·25전쟁사』 제3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142. 통계에 의하면 한국군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 북한군 93만 명, 중공군 100만 명, 민간인 피해 250만 명, 이재민 37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등이었다.

7)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2007. 11)에서 전쟁시기의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등에 관련된 문제라는 이해를 같이 하고 추진대책을 협의 및 해결하기로 했다.

8) 위의 책, p. 144.

○ 전사자 명부⁹⁾

구 분		계	1사단	3사단	6사단	7사단	8사단	수도사단	해병대
전쟁기간 총 전사자		77,115	9,832	11,631	13,910	12,152	16,657	11,113	1,820
북한 지역	전사자 명 부	8,824	497	1,153	2,205	2,037	1,948	958	26
	망 라 기 간	10.1- 12.16	10.11- 12.4	10.1- 11.30	10.3- 11.30	10.14- 12.15	10.8- 12.15	10.1- 12.16	10.27- 12.15

〈표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지역에서 전투를 실시했던 7개 부대의 손실은 전쟁기간 총 전사자의 11.4%에 달한다. 북진작전 기간 중 참전 병력 52,607명의 16.7%가 전사했는데 여기에서 제7사단의 경우 전사자는 2,037명 23%, 제8사단은 1,948명 22%이다.¹⁰⁾ 그리고 북한지역 작전기간 중 축선별·부대별로 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피해현황은 〈표 3〉과 같다. 그런데 여기에는 총 손실은 1,870명으로 전사 215명, 실종 637명, 전상 1,018명에 불과한데 이 중 전사자는 전체 전사자 8,542명의 2.5%에 불과하다. 더구나 대량 피해가 발생했던 부대 중 제7사단 및 제8사단의 피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¹¹⁾

9) 대한민국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부』, 1992. 제1집부터 제32집까지 부대별 전사자 명부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정확한 장소는 전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추정장소가 많다. 그리고 전사자에 관한 통계로 육군본부 「전사자 병적기록부 D/B」에는 동일기간 중 5,698명으로 되어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6·25전사자 유해소재 관련 자료집(북진기간 중 전사자 현황 분석)』, 2008. p. 21에는 12,5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산출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구 분	계	1사단	3사단	6사단	7사단	8사단	수도사단	기 타
인 원	12,564	907	1,318	2,758	1,536	1,659	772	3,614

10)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2권, 1970, pp. 209-210. 참전병력의 산출은 아래 인원을 참조하였다. 사단별 연대별 인원은 2,168명으로부터 2,728명까지 차이가 있다.

1사단	3사단	6사단	7사단	8사단	수도사단	해병대
9,715	7,059	9,112	9,698	9,866	7,016	3,141

11) 제6사단 7연대의 경우, '초산 철수작전시 1950년 11월 6일 사선을 넘어서 개천으로 집결한 연대병력은 총 3,552명 가운데 875명에 불과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연대병력의 75%가 손실되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미 제2사단의 경우, 1950년 11월 후반 전투로 인한 사상자가 4,940명이며 이 중 90%인 4,500명이 25일 이후 군우리 부근에서 발생했다.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1996, p. 117, p. 226.

〈표 3〉 전사 기록으로 본 전투 피해 현황¹²⁾

○ 중·서부 축선

구 분		계	진 격				지연전 / 철 수	
1사단	전투명		① 시변리 (10.11-10.17)	② 평양탈환 (10.18-10.20)	③ 영변-운산 (10.22-10.25)	④ 운산-영변 (10.26-11.3)	⑤ 박천-용산동 (11.6-11.30)	⑥ 평양철수 (12.2-12.4)
	전사	144		28		66	50	
	실종	636				471	165	
	전상	524		70		267	187	
6사단	전투명		① 신고산-원산 (10.14-10.19)	② 성천-개천 (10.20-10.22)	③ 초산진격 (10.23-10.26)	④ 초산-온정리 (10.24-10.30)		
	전사	27			27			
	실종							
	전상	195			195			
7사단	전투명		① 평양진격 (10.11-10.20)				② 개천-비호산 (11.1-11.7)	③ 덕천 (11.22-11.26)
	전사							
	실종							
	전상							
8사단	전투명		① 철원-구장동 (10.8-10.23)	② 희천진격전 (10.24-10.26)			③ 개천-원리 (11.1-11.22)	④ 영원-맹산 (11.23-11.26)
	전사							
	실종							
	전상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제4권(1971), 제5권(1972). 전투를 종합

○ 동해안 축선

구 분		계	진 격				철수 / 지연전	
수도사단	전투명		① 양구- 신고산 (10.1- 10.9)	② 원산- 탈환 (10.8- 10.15)	③ 영흥- 성진 (10.16- 10.30)		④ 길주- 청진 (11.1- 11.30)	⑤ 청진- 홍남 (12.1- 12.16)
	전사	19			11		8	
	실종							
	전상	193			43		150	
3사단	전투명		① 평양- 고성 (10.1- 10.7)	② 원산- 탈환 (10.8- 15)	③ 원산- 함흥 (10.16- 11.5)		④ 길주- 혜산진 (11.17- 11.30)	⑤ 성진 (12.2- 12.8)
	전사	1	1					
	실종							
	전상	5	5					
해병대	전투명					① 간성- 고성 (11.1- 11.9)	② 마전리- 동양리 (11.10- 12.2)	③ 원산- 함흥 (12.3- 12.15)
	전사	24					2	22
	실종	1						1
	전상	101					4	97

한편 북한지역에서의 손실인원 판단 중 실종 및 포로에 관한 현황은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현황으로 실종 및 포로는 32,838명인데, 그동안 포로 현황은 논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6년 연구에 의하면 한국군의 포로가 37,815명이다.¹³⁾ 전쟁 기간 중 전과(戰果)는 발표하는 측이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해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당시 중공군이 북한지역에서의 작전을 주도했으므로 <표 4>의 현황을 고려 시 중서부 지역에서 전투를 실시했던 4개 사단이 많은 실종 및 포로가 발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992, p. 38. 이 자료에는 중공군이 참전한 기간부터 종전시(1950. 10. 25~1953. 7. 27)까지 포로 획득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전(1950. 6~10)에 북한군이 획득한 포로까지를 여기에 포함한다면 최대 5만 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장 최근 연구인 '6·25전쟁 중 국군포로의 소련 이송 관련 연구'에 의하면 86,873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군포로 규모에 관해서는 그동안 소련 및 중국 측 자료만 공개되었고 결정적인 단서인 북한 측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표 4〉 6·25전쟁 포로 현황

○ 공산군의 포로획득 현황¹⁴⁾

계	1950.11.7-12.24	1951.1.8-11.30	1952.3.31-11.30	1953.4.30-7.27
37,815명	10,309(27.2%)	19,621(51.8%)	1,753(4.6%)	6,132(16.2%)

○ 국군포로의 귀환 및 사망자 현황¹⁵⁾

계	상병포로 귀환자	일반포로 귀환자	북한군 편입 후 포로된 자	영 현 귀환자	억류 중 사망자	송 환 불원자	간헐적 귀환자
11,353	471	7,861	1,174	606	869	326	46

여기에서 6·25전쟁 기간 중 실종 및 포로 인원 중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즉 공산군에 의한 포로획득 현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이 통계를 준용해 보면 어느 정도 북한지역에서의 실종 및 포로인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총 32,838명 중 귀환 및 사망자 11,353명을 제외하면 21,485명이며 이 중 북한지역 작전기간 중 발생한 10,309명은 전체의 27.2%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장에서 판단하는 덕천 및 영원전투손실은 다음 기준으로 한정했다. 즉 '북한지역 유해소재분석의 기준'으로 지역은 현재의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전 지역 중에서 국군의 전투가 있었던 곳이며, 기간은 1950년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7개 부대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p. 38. 기간 중 포로획득 현황을 국군 포로에 한해 작전단계별로 재정리

15) 조성훈, 「6·25전쟁 중 국군포로의 소련이송 관련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 6.

30개 전투로 한정하고자 한다.¹⁶⁾ 그리고 지역별 전사상자 판단은 다음 장의 집중분석대상인 덕천 및 영원전투에 한해 교리를 적용하여 판단하고,¹⁷⁾ 기타 지역은 기존의 전사자명부의 손실을 적용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중공군의 제1·2차 공세를 간략히 살펴본 다음 덕천 및 영원전투 유해소재 분석, 전투결과 및 교훈순으로 분석했다.

3. 덕천 · 영원전투 분석

(1) 중공군의 개입과 제1·2차 공세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까지 총 5차례 걸쳐 대규모 공세를 실시했다. 이 중에서 중공군의 제1차 공세¹⁸⁾가 운산 및 온정리-회천 돌출부를 중심으로 중국군 참전을 알리는 서막이었다면 제2차 공세는 일거에 UN군과 한국군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2차 공세로 중공군의 우회 및 후방차단의 목표였던 국군 제2군단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6) 1951년 1월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남한지역이 평택-강릉선까지 내려온 후 재반격하여 오늘날 휴전선까지 진출하였으므로 비무장지대(DMZ) 및 남한지역은 2009년에 이미 분석되었다. 따라서 북한지역 유해소재분석 대상은 북진작전과 철수 및 지연전 지역으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간도 제3사단이 38선을 돌파한 시점부터 수도사단이 1950년 12월 15일 홍남에서 철수한 시점까지이다. 이날 전선은 개성-연천-화천-철원-간성을 연하는 선이었다.

17) 육군본부, 『야전교범 31-6, 전투력 복원』, 1998, pp. 3-4. 전투력 복원기준은 이후 2002년과 2010년에 재개정된 『전투력 복원』 교리에는 전투력 수준은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의 지역별 피해현황 산출을 위해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였다.

전투력 수준	75% 이상	74~60%	60% 미만	50% 미만
복원 방법	전투력 보충	긴급 재편성	정밀 재편성	재조직
복원 장소	전투지역 내	전투지역 내	책임부대 후방지역	책임부대 후방지역

18) 제1차 공세는 1950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부 지역은 온정·운산 위주로, 동부 지역은 황초령·부전령 위주로 UN군의 추수감사절 공세와 대비된다. 중국의 한국전쟁 운동전 시기 전역 구분에 관해서는 오정택, 「한국전쟁 초기 중국군의 군사전략과 전술 변화양상 연구」, 『군사』 제67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6, p. 111을 참조.

당시 중공군은 주간 전투를 극히 제한한 채 당일 밤에 진행되는 야간 전투를 통하여 국군 부대를 봉괴시키려고 하였으며, 많은 병력을 투입하면서도 병력의 일부를 측방과 후방으로 침투시키고 화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3면, 4면에서 포위하여 방어의 균형을 파괴하려 했다.¹⁹⁾

중공군의 작전의도는 청천강 동안(東岸)의 한국군 제2군단을 섬멸하여 전역 돌파구를 열고, 모든 전역에서 전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만드는 것으로 제40군 주력은 대동강 양안을 끼고 영원·덕천을 향해 공격하고, 1개 사단은 맹산을 향해 공격하는 것이었다.

제40군의 주력이 지향했던 덕천은 한반도 북부 묘향산맥 중부 동쪽 산록에 위치해 있었고, 한반도 북부 산악지구의 문호였다. 영원·맹산은 덕천 동쪽과 동남에 있었고, 덕천과는 각각 약 20km를 떨어져 있으며, 한반도 북부 북대봉(北大峰)산맥의 서북 산록에 위치해 있었다. 이 지구는 마치 한반도의 허리부분인 동·서해안을 연결하는 선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다. 중공군이 한반도 덕천지구를 장악하면 한반도 북부와 서북부 지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지원군은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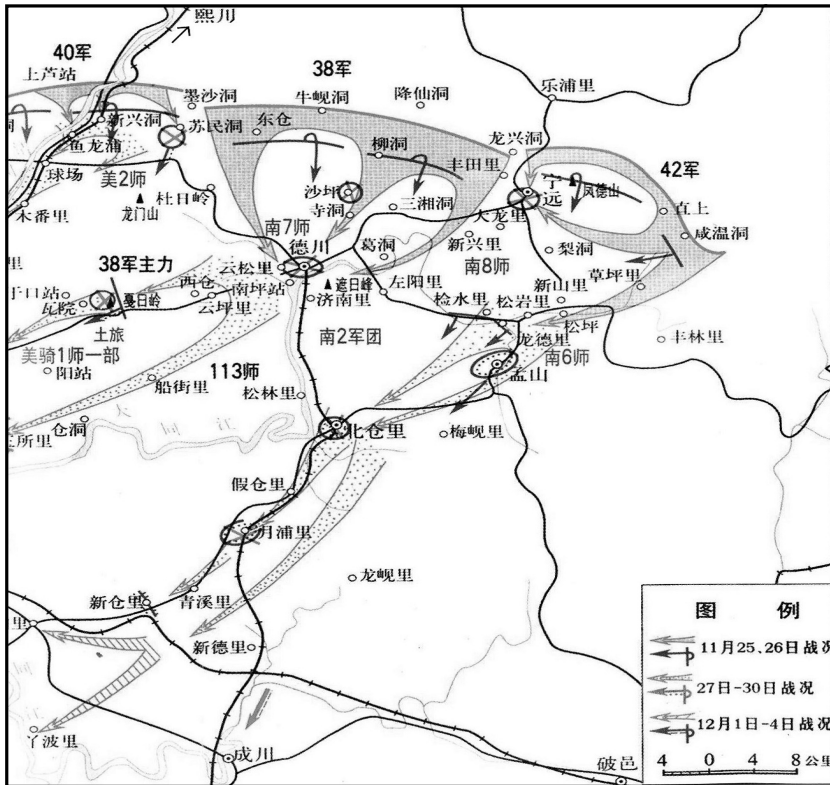
따라서 덕천·영원·맹산구역을 장악하고 전선을 평양, 원산선 정면으로 추진하면 지원군은 전략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고 반격작전을 통해 한반도 전국(戰局)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군의 장기작전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공군의 제1차와 제2차 공세는 6·25전쟁 초기 전체 국면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왔고, 특히 제2차 공세는 적의 능력을 경시하고, 작전환경을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여 감행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²¹⁾

19) 오정택, 「한국전쟁 초기 중공군의 군사전략과 전술 변화양상 연구」, p. 115.

2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 연구부/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원제: 항미원조전쟁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p. 120-121.

21) 오정택, 「한국전쟁 초기 중공군의 군사전략과 전술 변화양상 연구」, 『군사』 제67호, p. 118.

〈요도 1〉 중국군 제2차 공세²²⁾



(2) 제7사단 덕천전투

1) 작전경과

유엔군은 예상하지 못한 중국군의 제1차 공세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청천강선까지 물러났다. 이에 11월 6일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는 한반국

2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 연구부/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원제: 항미 원조전쟁사』 제2권, 부도 3(제2차 전역 서부전선 작전경과 요도)를 덕천 및 영원 중심으로 재편집.

경선까지 다시 진격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공세로 미 제8군은 3개 군단으로 미 제1군단을 서, 미 제9군단을 중앙, 국군 제2군단을 동으로 하여 상호 협보된 공격을 실시했다.²³⁾ 따라서 국군 제2군단은 11월 23일까지 제7사단을 덕천 지역을, 제8사단은 영원 지역을 각각 확보한 후 11월 24일 희천과 유원진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했다.

제7사단은 최초 제3연대가 좌에서 묘향산 서쪽의 1531고지를, 제8연대가 묘향산 남쪽의 가마봉과 백애산을 목표로 2개 연대 병진공격을 개시했다.²⁴⁾ 그러나 11월 25일부터 중국군 제38군 114사단의 공격에 둔좌되어 제5연대를 사단의 중앙지역으로 투입하였으나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제5연대 및 제8연대는 11월 26일 각각 지연전 및 철수작전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후 제7사단(-)은 덕천에서 철수한 후, 북창을 경유하여 다시 순천으로 남하한 다음 여기에서 부대를 정비 후 11월 30일에 강동을 거쳐, 승호리로 이동하여 대동강선 방어작전에 대비하였다.²⁵⁾

2) 유해소재 분석

덕천전투의 피해규모는 전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 현황의 유일한 단서는 전사자명부상의 585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다소 차이가 많다. 전사자로 기록되지 않은 숫자가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당시의 전투상황을 고려시 심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전사자가 585명에 불과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²⁶⁾ 이 중에서 덕천 전투기간 중

23) 여기에서 맥아더의 유엔군 사령부는 10월 2일 작전명령 2호로 발표했던 유엔군의 전진한계선과 작전통제선으로 설정했던 맥아더라인(정주-함흥)과 10월 19일 재설정했던 뉴맥아더라인(선천-성진)을 철폐하고 11월에는 소위 북진통일의 마지막 관문인 중소국경을 목표한 크리스마스 공세를 '재난으로의 눈먼 행진'을 감행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남정옥,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삼우사, 2010, p. 344.

2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사(중)』, p. 196.

25) 이 작전에서 제3연대는 적의 공격이 경미하여 백령천 북쪽의 방어진지를 26일까지 지키고 있다가 덕천으로의 퇴로가 차단된 것을 인지하고, 미 제2사단의 지역인 구장동으로 이동하여 구장동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26) 당시 보충이 된 장교들의 대부분은 전투경험이 없었고 병사의 대부분은 새로 징집된 신병이었다.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제6권, 1986, p. 245.

전사자 585명 중 11월 26일에 420명 71.8%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부대별로는 제8연대가 185명으로 31.6%, 제5연대가 83명 14.1%, 제3연대가 57명 9.8%, 사단은 260명 44.5%이다.²⁷⁾ 이는 예하부대의 전사상자가 사단으로 후송되어 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사를 기초로 전투력 복원기준을 적용하여 피해 현황을 산출한 다음 전투손실과 비전투손실로 구분함으로써 전사자의 현황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전투력 복원시 정밀재편성 비율을 적용하면 방어전단의 대대 손실은 긴급재편성 기준인 25% 전투력 손실을 고려하고, 지연전 및 철수간에는 추가손실 1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표 5>와 같이 최대 2,539명 26%가 손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덕천전투 현황

○ 제7사단의 북한지역에서 「전사자명부」 상 전사자²⁸⁾

계	평양탈환작전 (10. 14-10. 31)	개천전투 (11. 1-11. 18)	덕천전투 (11. 19-11. 30)	지연전/철수 (12. 1-12. 5)
1,628	278	700	585	474

○ 사단 병력현황²⁹⁾

구 분	계	보 직		제 대 별			
		사령부/ 직할	3·5·8연대	연대	대대	중대	수색중대
인원(명)	9,744	3,381	6,363	2,741	700	150	168
비율(%)		34.7	65.3				

27) 제3연대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은 덕천전투에서는 중공군과의 접촉이 다른 연대에 비해 없었으며, 구장동으로 이동하여 전투를 수행했다.

28) 대한민국전쟁기념관, 『전사자명부』, 제15권, 1992, pp. 279-397. 실제 전투기간은 짧으나 전사자 현황 일치상 전투기간을 중심으로 전사자 숫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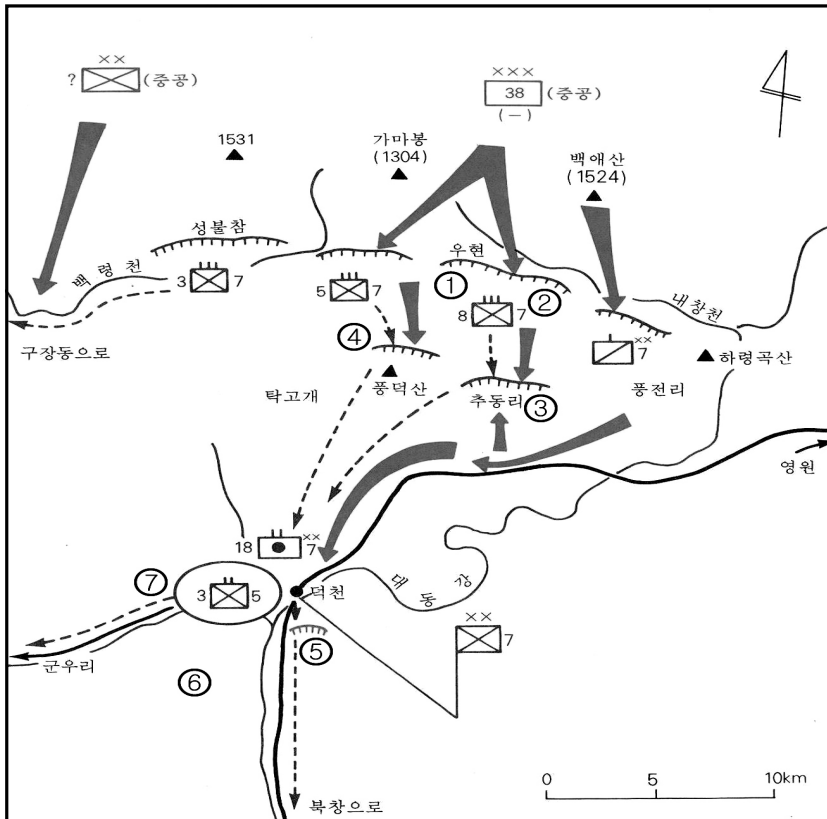
29) 국방군사연구소, 『제7사단 전투상보』, 제55권, 1987, p. 59. 그리고 연대의 보직병력은 편제병력 대비 93.1% 보직 비율이다.

○ 손실인원 추정³⁰⁾

지 역	부 대	손실 인원(추정)
① 사향산(991고지) 일대(BV778192)	제8연대 3대대	175명(대대 인원의 25%)
② 768고지 일대 (BV822187)	제8연대 2대대	175명(대대 인원의 25%)
③ 향곡산(646고지) 일대(BV806143)	제8연대 1대대	175명(대대 인원의 25%)
④ 785고지, 586고지 일대(BV7419)	제5연대 1, 2대대	350명(대대 인원의 25%)
⑤ 제남리 일대 (BV6902)	사령부/직할, 제5연대 3대대	사단(2,740)+제5연대 3대대(700)×25%=860
⑥ 안산동 일대 (BV6196)	제8연대	연대(2,731)-기존 손실 제외(525)×25%=551
⑦ 서창 일대 (BV5901)	제5연대(-1)	(3대대 제외)×15%=253
계		2,539명

한편 지역별 전투현황은 <요도 2>와 같다. ①지역은 제8연대 3대대가 공격시 증강된 1개 대대 규모와 격전 후 북사면 610고지가 피탈(11. 25)되고 백병전 후 철수했으며(11. 26), ②지역은 제8연대 2대대가 공격시 증강된 1개 대대 규모의 공격을 격퇴한 후, 1개 연대 규모가 창후령 후방을 차단하자 포위된 상태에서 혈전을 실시했다.(11. 26) ③지역은 제8연대 1대대가 하령곡산으로부터 공격하는 1개 연대와 격전을 반복했으며(11. 26), ④지역에서는 제5연대 1, 2대대가 방어 후 풍덕산의 저지진지를 점령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⑤지역에서는 사단 사령부 및 직할부대, 제5연대 3대대 등 철수부대의 퇴로가 차단되어 돌파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11. 26) ⑥지역은 제8연대(-)가 철수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11. 26), ⑦지역은 제5연대가 철수시 중국군의 포위소멸전투로 대량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11. 26).

30) 육군본부, 『전투력 복원』, 1998, pp. 3-4. 손실인원은 전체 정밀 재편성 기준인 40% 손실시 전체인원의 25%는 방어작전시 손실, 철수 및 지연작전시 15% 손실을 적용했다. 당시 제5연대 3대대는 사단 예비 임무를 수행했다.

〈요도 2〉 덕천전투 및 유해소재지역³¹⁾

이를 통해 제7사단은 11월 26일 대량손실이 발생했으며 전사자명부의 585명 외 추가 실종자가 전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참전자의 증언³²⁾에 의하면 당시 제5연대의 경우 2개 대대 규모가 전멸했다고 했다.

3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1996, p. 200. 덕천전투 요도를 유해소재 추정지역을 표기하면서 재편집.

32) 『조선일보』 2010년 3월 23자, A8면. 제5연대 1대대 통신장교 윤정식의 증언. 또한 철수 작전시 “흩어졌던 부대를 다시 수습하고 보니 병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당시 제5연대 1, 2대대 등 1천2백여 명). 모두가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줄지의 기습에 흩어져 제대로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병사가 많았고 일부는 포로가 되기도 하였다.” 윤정식, 『두번하는 생일(덕천포로수용소 탈출기)』, 지평, 1998, p. 85.

“11월 묘향산에서 새까맣게 깔린 중공군한테 포위돼 2개 대대가 전멸하다시피 했다”, “덕천 포로수용소에는 포로가 300여 명 정도가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제5연대 3대대는 사령부 예비였으므로 제1, 2대대가 서창방향으로 11월 26일 철수 중 중공군의 포위소멸전투로 심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당시 1개 대대가 700여 명이므로 증언은 2개 대대 내용과 여기에서 판단한 603명의 50%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중국군의 기록에 의하면 덕천 서남의 서창(BV5901), 안산동(BV6195), 장안리(BV6794) 방향으로 포위를 돌파하려고 했으며, 포위소멸 전투를 제336연대가 남평역 부근 고지를 점령하여 제7사단 5,000여 명을 섬멸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³³⁾ 따라서 총 손실 2,539명을 전투손실과 비전투손실로 판단해 보면 <표 6>과 같다. 당시 전투상황은 중공군의 공격으로 퇴로가 차단되고 견제유지가 제한되며, 각개 단위로 분산 탈출을 실시했으므로 전투손실 중 전상자, 비전투손실 인원에 대한 후송조치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손실은 최소 1,802명에서 최대 2,539명으로 판단된다.

<표 6> 종별 손실판단³⁴⁾

구 분	전투손실				비전투손실			
	소계	전사	전상	포로/실종	소계	사망	부상	탈영/실종
기준(%)	71	22	71	7	29	0.9	91.6	7.5
접적사단	71	21	63	16	29	0.8	91.7	7.5
7사단(명)	1,802	378	1,135	289	737	16	670	51

3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 연구부/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원제: 항미 원조전쟁사 제2권』 p. 148. 남평역은 군사지도상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덕천역 좌측 2km 지점인 남평참(BV6603) 일대로 중공군이 점령한 고지는 서창, 안산동 일대로 추정된다.

34) 종별 손실판단은, 육군본부, 『야전교범 101-1-1, 편성·기술 및 군수제원(Ⅰ)』, 1999. pp. 6-6~6-29 참조. 현재는 K-2008 전시인원 손실률(지상군)을 기준으로 손실판단을 실시하는데 종별 손실률 기준은 동일하다.

그리고 당시 기상이 동계였으며 정상적인 매장형태보다 전사자에 대해 전투 인근지역에 집단으로 화장 또는 매장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지역에서의 유해소재 분석은 탈북자 또는 귀환 국군 포로 등의 증언을 통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제7사단은 덕천에서 철수한 후, 북창을 경유하여 다시 순천으로 남하한 다음 여기에서 부대를 정비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11월 30일에 강동(江東)을 거쳐서 승호리로 이동하여 대동강선 방어작전에 대비하였다.³⁵⁾

(3) 제8사단 영원전투

1) 작전경과

제8사단은 제2군단의 우전방 사단으로서 서부전선의 가장 동측에서 공격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사단도 좌인접 제7사단과 함께 24일 10:00에 좌전방 제10연대가 소래산을, 우전방 제21연대가 백암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했다. 이때 사단예비인 제16연대는 공격 간 동측방을 방호하기 위해 2개 대대를 맹산 동측방에 배치하고 1개 대대만을 사단 예비로 맹산에 집결시켜 사단 지휘소를 경계하고 있었다.³⁶⁾

이때 중공군은 11월 25일 황혼, 지원군 제42군 측익우회부대가 먼저 행동을 개시하였다. 통로개척을 책임지고 있는 제126사단 제376연대가 성제리, 애창에서 차례로 한국군 2개 중대의 공격을 궤멸시켰으나 중리에서 한국군 제16연대의 저지를 받자 함께 전진하고 있던 제124사단이 즉각 제372연대를 전투에 투입하고 제376연대와 협동하여 2시간 동안 격전을 치른 후 적 진지를 돌파하였다.³⁷⁾ 이러한 중공군의 공세로 제8사단은 지연전 및 철수작전으로 전환하여 제16연대는 중공군의 매재령 진지를 돌파한 후 북창을 경유하여 11월 27일 오후에 가창으로 철수하였고, 제10연대와 제21연대

3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사(중)』, 1996, p. 201.

36) 위의 책, p. 201.

37)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 연구부/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원제: 항미 원조전쟁사 제2권』 p. 149.

의 분산병력은 산길을 따라 북창과 가창지역으로 집결하였다. 이후 국군 제8사단은 가창 집결지에서 강동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재편성한 다음 평양-원산 선 방어작전에 대비하게 되었다.³⁸⁾

2) 유해소재 분석

영원전투 피해 현황의 유일한 단서는 덕천전투와 마찬가지로 전사자 명부상의 637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로 보면 전사자로 기록되지 않은 다수 인원이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당시의 전투상황을 고려 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전사자가 637명에 불과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여기에서 기간별로 보면 11월 26일에 111명 13.4%, 11월 27일에 148명 17.7%가 발생했으며, 부대별로는 사단이 584명 70%, 제10연대가 57명 6.1%, 제16연대가 67명 8%, 제21연대가 124명 14.9%이다. 사단이 가장 많은 것은 예하부대의 전사상자가 사단으로 후송되어 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8사단의 피해 규모도 전사에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투력 복원 및 손실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했다.³⁹⁾ 따라서 전투상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전사에도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 등으로 기술시 최대 40%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요 전투지역의 전투부대를 고려하여 방어전단의 대대 손실은 긴급재편성 기준인 25% 전투력 손실을 고려하고, 지연전 및 철수작전시에는 추가 손실 15%를 반영하여 전투력 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했다.⁴⁰⁾ 영원전투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영원전투 현황

○ 제8사단의 북한지역에서 「전사자명부」 상 전사자⁴¹⁾

계	구장동전투 (10. 8-10. 23)	희천 진격전 (10. 24-10. 26)	개천-원리전투 (11. 1-11. 22)	영원-맹산전투 (11. 23-12. 5)	지연전/철수 (12. 1-12. 15)
1,948	336	147	351	637	477

38) 위의 책, p. 205.

39) 전투력복원 기준은 야전교범 31-6, 『전투력 복원』, 육군본부, 1998을 참조

40) 야전교범 31-6, 『전투력 복원』, 육군본부, 1998, pp. 3-4.

41) 대한민국전쟁기념관, 『전사자명부』, 1992, 제17권(pp. 340-372). 제18권(pp. 1-81)

○ 사단 병력현황⁴²⁾

구 분	계	보 직		제 대 별		
		사령부/직할	10·16·21연대	연대	대대	중대
인원(명)	10,121	3,539	6,572	2,190	560	130
비율(%)		35.0	65.0	평균인원임		

○ 손실인원 추정⁴³⁾

지 역	부 대	손실 인원(추정)
① 866고지 후방 계곡 일대(BV906218)	제10연대 2대대	140명(대대 인원의 25%)
② 삼거리 일대(BV0017)	제21연대 1대대	140명(대대 인원의 25%)
	제21연대 3대대	140명(대대 인원의 25%)
③ 도평리 일대(BV806143)	제10연대 3대대	140명(대대 인원의 25%)
④ 창리 일대(BV6902)	제16연대 1대대	140명(대대 인원의 25%)
	제16연대 2대대	140명(대대 인원의 25%)
⑤ 두하동 일대(BV9302)	제10연대 직할	127명(연대 인원의 25%) ⁴⁴⁾
	제10연대 1대대	140명(대대 인원의 25%)
	제10연대 2, 3대대	224명(대대 인원의 15%) ⁴⁵⁾
	제21연대 직할	127명(연대 인원의 25%)
	제21연대 2대대	140명(대대 인원의 25%)
	제21연대 1, 3대대	168명(대대 인원의 15%)
⑥ 매재령 일대(BV8287)	제16연대 3대대	168명(대대 인원의 15%)
	사령부/직할	141명(인원의 4%)
계		2,075명

상기 <표 7>에 의해 지역별 전투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은 제10연대 2대대가 공격시 중공군 1개 연대 공격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11. 25),

42) 육군본부, 『제8사단 전투상보』 제56권, 1987, p. 108. 1개 연대의 보직병력 2,190명은 3개 연대의 평균병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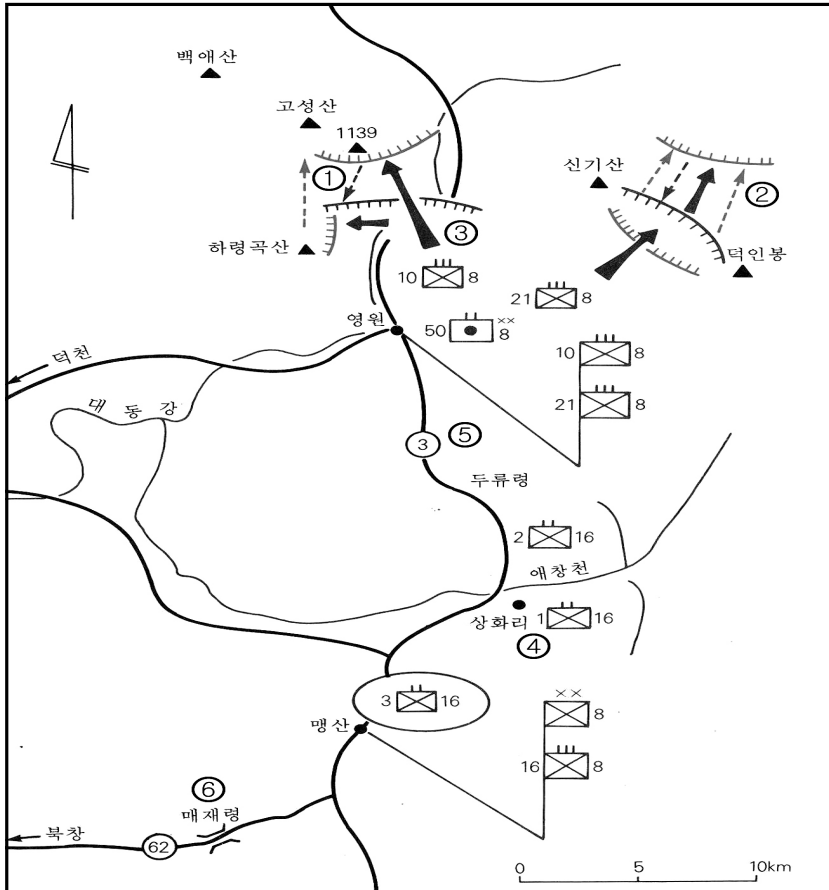
43) 야전교범 31-6, 『전투력 복원』, pp. 3-4.

44) 연대 병력 중 1, 2, 3대대 병력을 제외, 즉 2,190명-1,680명=510명(연대 본부/직할)임

45) 최초 560명에서 ①③지역에서 224명(25%) 손실 후 추가 손실 84명(15%)×2개 대대=168명이며, 사령부 직할은 단기손실률(지연전) 기준 4% 적용.

②지역은 제21연대 1, 3대대가 중공군 제124사단과 격전을 실시했다(11. 25). ③지역은 제10연대 3대대가 중공군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했으며(11. 26), ④지역은 제16연대 1, 2대대가 중공군 제126사단의 포위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11. 26). ⑤지역은 제10연대 및 제21연대의 잔여

〈요도 3〉 영원전투 및 유해소제지역⁴⁶⁾



4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1996, p. 204. 영원-맹산전투 요도를 유해소제 추정지역을 표기하면서 재편집.

병력이 중공군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피해가 있었으며(11. 26), ⑥지역은 제8사단(-)의 철수 작전시 사단 사령부 및 직할부대, 제16연대 잔여병력이 중공군의 차단으로 피해 발생(11. 26)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참전자의 증언에서도 일치됨을 알 수 있다.⁴⁷⁾

그리고 제10연대의 경우에도 전사의 사실로 보아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사단은 평양-원산선 방어계획의 일원으로 11월 30일에 지휘소를 강동으로 전진 개설하고 사단을 전개하였다. 즉 제10연대는 사단 교육대를 편입시켜 재편성 후에 강동과 삼등 간의 요지인 흑령 일대를 점령하였으며, 제16연대는 강동 서북쪽의 지식리 부근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었고, 제21연대는 강동에서 예비대로 다가올 결전에 대비했다.”⁴⁸⁾

여기에서 연대별 최대 손실은 <표 7>로 보면 제10연대는 771명 39.8%, 제21연대는 715명 36.9%, 제16연대 448명 23.1% 손실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투손실 중 전상자, 비전투손실 인원인 후송조치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전투상황도 덕천전투와 마찬가지로 중공군의 공격으로 퇴로가 차단되고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건제유지가 제한되어, 각개 단위로 분산 탈출을 실시했다.⁴⁹⁾ 총 손실은 <표 8>과 같이 실종 및 포로를 포함하여 최소

47) 제8사단, 『오투기 역사』, 1980, p. 355. 참전자 박창암(당시 사단 수색대장)의 증언
“영원 서쪽의 만진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아마 1,000미터 이상의 고지였습니다. 거기서 연대가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었어요.……제10연대의 주력은 대부분 여기에서 거의 전멸을 당하게 되었고…….” 상세한 지역 연구는 『近世 韓國五萬分支一地形圖』, 대정(일본 연호, 1910-1914년 사이임), p. 488을 참조. 만진덕산(萬陣德山)은 오늘날 군사지도 1:5만(신읍 3125 IV, L752, 3-KAMC/DMA)에는 1160고지(CV003083)로 당시 제21연대 1, 2대대가 측방으로 우회하는 중공군 2개 연대와 전투를 수행했으며, 요도⑤ 지역에 포함된다.

48) 위의 책, 『오투기 역사』, p. 354. 그리고 참전자의 증언(당시 제21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 남기용, 2010년 4월 15일 증언청취)에 의하면 영원전투에서 많은 손실이 있었으며, 특히 증언자는 11월 17일경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국군포로가 750여 명이었다고 했다. 이를 볼 때 당시 실종으로 처리된 많은 인원이 포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증언자는 1951년 2월경 영월에서 탈출하여 제8사단으로 귀환했다.

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전투』, 1985, p. 210.

1,473명에서 최대 2,075명으로 판단되며, 덕천전투와 매우 유사하므로 손실은 증언청취 등을 통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표 8〉 종별 손실판단⁵⁰⁾

구분	전투손실				비 전투손실			
	소계	전사	전상	포로/실종	소계	사망	부상	탈영/실종
기준(%)	71	22	71	7	29	0.9	91.6	7.5
접적사단	71	21	63	16	29	0.85	91.75	7.45
8사단(명)	1,473	309	927	237	602	13	547	42

(4) 전투결과 및 교훈

대동강을 연한 국군 제2군단의 동토(凍土)의 대결전은 제7사단 및 제8사단의 심대한 손실로 인해 중부전선에 큰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이로써 유엔군은 평양과 원산을 연하는 유리한 방어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불과 15일 만에 개성과 연천, 화천 및 속초를 연하는 선까지 전선을 조정하게 되었다. 이는 중공군의 제1차 공세로 중공군의 개입을 인지하고도 적에 관한 첩보수집을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공세로 전환한 결과였다. 또한 적의 능력을 경시하고, 작전환경을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해 감행하는 작전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⁵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7사단 및 제8사단의 손실현황은 전사자명부와 많은 차이가 있으나 당시의 전투상황과 증언 등을 고려시 많은 피해

50) 육군본부, 『편성 및 기술제원표』 제1권, pp. 6-28~6-29 기준을 적용.

51)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편, 『6·25전쟁의 실패사례와 교훈』, 2004, p. 257. 각종 자료에 의하면 당시 중공군의 배치상황들이 수시로 보고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례가 많다.

가 발생했음은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덕천 및 영원의 중앙으로 흐르는 대동강상의 금성댐은 대동강 지역의 수자원 공급을 위해 1986년에 신설된 댐이다. 따라서 제7사단 8연대와 제8사단 10연대의 지연전 및 철수 경로로 많은 전사자가 수몰 지역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승리했던 전투이든 패배했던 전투든 전투상보의 정확한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다. 지금까지 북한지역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만 9천여 구는 실종 및 포로인원을 모두 포함시 가능한 숫자이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했던 7개 부대 중 중서부 지역의 4개 사단의 최대 손실을 40%로 가정시 1만 6천여 명이며, 동해안 축선의 3개 부대는 10% 미만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최대 손실을 25%로 가정시 4천여 명이다.⁵²⁾ 따라서 북한지역에서의 전사자 유해소재분석 대상은 최대 2만여 명으로 판단되었다.

4. 향후 과제

(1) 유해발굴사업의 중요성 인식 및 홍보강화

최근 한국갤럽 조사 결과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13~19세에선 62.9%, 20대에선 58.2%였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각각 37.1%와 41.8%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6·25전쟁 책임이 가장 큰 나라는 북한’이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43.9%뿐이었다.⁵³⁾

6·25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유해발굴 현장 답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확대

52) 전사자 명부로 보면 총 전사자 중 북한지역에서의 전사자는 제3사단은 1,153명 9.9%, 수도사단은 958명 8.6%, 해병대는 26명 1.4%이다. 그리고 작전병력 17,216명 중 25% 손실로 판단시 4,304명이다.(p. 6. 참조)

53) 『조선일보』 2010년 3월 25일자, A4면.

된 부대별 유해발굴사업은 이러한 청소년들이 군에서 직접 발굴해 봄으로써 역사의 현장교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⁵⁴⁾ 한편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안보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 발굴현장답사와 함께 현장에서 참전자의 증언을 통해 많은 효과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유해발굴 사진·유품 순회전시 방안, 대학생 유해발굴 현장 견학·동참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국토개발로부터 전사자 유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전사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가족 소재 확인과 유전자 샘플 채취 활성화 방안,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추진방안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⁵⁵⁾

(2) 가시적인 사업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 남북한은 상호 군사적 대결과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7년 10월에 있었던 '10·4선언'에 남북한이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실현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⁵⁶⁾ 그리고 남북한 상방이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전쟁시기의 유해발굴'과 '국군포로 송환' 문제의 해결에 북측은 경제적 급부의 제시를 요구할 것이며, 우리 정부

54) 『월간조선』 2010년 4월호, pp. 277-278.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미국의 JPAC (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미 합동 전쟁포로(Prision of war) 및 실종자(Missing in action) 확인 사령부다. 미국군 JPAC은 미국이 참전한 전쟁(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포함)에서 실종된 8만 8,000여 명의 미군을 수색하는 특수부대다. 이들은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 한 사람의 병사도 적진(敵陣)에 남겨두지 않는다(Leave no man behind),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Until they are home)'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쟁 끝난 지 몇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옛 전장이나 적성국을 누비며 단 한 구의 유해라도 조국의 품에 돌려보내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55) 『국방일보』 2010년 3월 29일자, 7면.

56) 장용운,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모색」, 『군사』 제7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p. 288.

가 이 문제의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역이용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⁵⁷⁾

한편 최근 정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⁵⁸⁾에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공동발굴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남북 화해·협력은 물론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비무장지대(DMZ)는 전쟁기간 중 가장 장기간 동안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어 많은 손실이 발생한 지역이다. 따라서 상징적인 장소로 판문점과 가장 인접해 있는 장단반도의 사천강 전투지역을 중심으로 남북공동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⁵⁹⁾ 일각의 시각으로 미국처럼 유해에 대한 대가를 위해 북한 내부지역에서의 국군 유해발굴을 허용할 것이라는 관점도 있으나 이는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시 금전적 이유로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서울 및 대전 현충원에 북한지역 전사자 추모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즉 현재는 묘역에 유해가 안장되지 않은 참전자는 현충탑 지하 및 충혼당에 위패만 봉안되어 있다.⁶⁰⁾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된 선열들의 위패를 추모공원에 모신다면 전쟁의 참화(慘禍) 속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내고 산화(散華)하여 북한지역에 뼈를 묻은 수많은 국군 장병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기릴 수 있을 것이다.

57) 김재홍,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의도 분석과 향후 전망」,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10. 3. 8, pp. 1-3.

58) 『국방일보』 2010년 3월 24일자, 1면/7면.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월 23일 DMZ 일대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생태보전과 지역발전을 연계하고, 글로벌 상징화와 홍보마케팅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59) 장단(사천강)전투는 서부전선 임진강 북단 사천강 일대에서 해병 제1연대(1952. 4. 10-10. 30), 해병 제1전투단(1952. 10. 31-11. 30)이 1953년 휴전시까지 중공군 2개 사단과 치열한 공방전을 실시했다. 이 전투로 전사 227명, 부상 383명, 실종 220명의 피해가 있었다. 해병대 군사연구소 홈페이지 자료 요약.

60) 국방부 국립현충원 현충과 질의 답변, 1AA-1002-031251(2010. 2. 16). 서울 현충원에는 묘소 27,775위 및 위패 94,929위, 대전 현충원에는 묘소 1,257위 및 위패 35,305위가 봉안되어 있다.

(3) 유해발굴 관련 자료집 지속 보완

유해발굴을 위한 자료 중 증언청취는 매우 중요하며 절실하다. 전쟁 사료 중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참전자의 증언이나 북한 주민 중 탈북자, 그리고 국군 포로 중 생존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증언이 요망된다.⁶¹⁾ 왜냐하면 당시 전투지역에서 대량 피해 유해들이 전투지역에 산재하거나 일부는 특정 지역에 집단 화장 또는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실종자들은 전사했거나 포로가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북한지역의 포로 수용소⁶²⁾ 인근에 다수의 국군 유해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6·25전쟁 참전자의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감소로 인해 참전자 증언은 절실히 요구된다.⁶³⁾ 따라서 북한지역에서의 유해소재 분석은 탈북자 또는 귀환 국군 포로 등의 증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해발굴사업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유해소재 분석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군사편찬연구소는 유해소재관련자료집을 집중 연구 및 발간을 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해소재자료집, 유해소재분석지도 등은 전사(戰史) 분석, 위패 및 묘비 분석, 각종 기록 및 제보, 증언, 현장탐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작성됐다.⁶⁴⁾

한편 이러한 자료집도 산림의 확대, 도시화, 도로 및 댐 건설 등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유해소재분석지도를 기초로 각 지역별로 심

61) 『중앙일보』 2010년 3월 27일자, 8면. “매년 3,000여 명의 탈북자가 들어온다고 한다.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탈북자가 벌써 2만 명이나 된다.”

62) 국군 포로 수용소에 관해서는 조성훈, 「6·25전쟁 중 국군포로의 소련이송 관련 연구」를 참조.

63) www.mpva.go.kr. 국가보훈처 보훈기록관 통계자료. 생존자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다.

기준일	계	일반 참전자	참전자 중 국가 유공자
2010. 1. 31	238,863	188,754	50,109
2009. 5. 31	248,280	196,363	51,917

64) 유해소재분석자료집으로 대표적인 것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발간한 『6·25전사자 유해소재 관련집』(2007)으로 6·25전사자 유해 매장 추정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6·25전쟁 유해소재 분석지도』(2009)는 전자책(Digital book) 형태로 축선별·지역별 122개 전투에 대해 정밀분석이 되어 있다.

층 깊은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북한지역은 생존자의 증언청취와 소련 및 중국 등의 공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표기방법도 30개 전투별로 전사자 및 실종자의 추정 인원수를 고려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 9>와 같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표 9> 북한지역 유해소재분석 현황(例)

전사 및 실종 확인지역(발굴 우선순위: A~C)			추가 확인요망 지역(D, 청색) ⁶⁵⁾
A(적색)	B(주황색)	C(황색)	
200명 이상 대량 손실지역	100~200명 미만	100명 미만	추가 확인 필요

5. 맺 는 말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 더 많은 전사자를 우리의 품으로 모시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데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선열들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은 지금까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6·25전쟁에서 조국을 지켜내기 위해 혹한의 동토에서 숨겨간 선열들이 있었음을 새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북한지역에서의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해 제한된 지역이었으나 덕천 및 영원전투의 피해 현황과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해 보았다. 전사자 명부에 수록되지 않은 많은 전사자와 실종자의 소재지를 어느 장소에 어느 규모 정도가 있을 것인지 접근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지역의 유해발굴 대상지역을 한정함으로써 차

65) 전사(戰史)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전사와 증언상 불일치 지역이 있을 경우 정밀 분석을 통해 판단.

후 사업 추진에 일관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투 후 남한지역으로 전선을 조정할 때까지 북한지역에서 전투를 실시했던 7개 부대의 병력보충 현황 등 전투력 복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는 전투에 대한 중복 연구보다 기억하기 싫은 음지에 가려져 있던 덕천 및 영원전투의 패전의 사실(史實)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유해발굴사업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으로 외국의 사례를 자주 홍보하고 학술회의 등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지역에서의 유해발굴사업은 남북의 공동의 노력을 통한 가시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오랜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으로서 북한지역이나 비무장지대 내에서 유해공동발굴은 그 상징적인 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로 구체적인 유해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데 이를 위해 급속하게 감소되어 가는 참전자의 증언 청취 노력을 통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지역의 유해소재분석지도 기본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에 결정적 지침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북한지역 유해발굴사업은 동서 냉전의 산물이자 남북분단의 아픔을 씻어내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남북한 상호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원고투고일 : 2010. 3. 31, 심사수정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10)

주제어 : 북한지역, 유해발굴사업, 유해소재분석지도, 각종 피해, 전쟁 포로, 덕천 전투, 영원 전투, 전사자 명부, 총 손실, 중별 손실 판단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Korean War deads' in the North Korea Area

Oh, Hong-guk

This year is propelling various memorial events of the Korean War outbreak 60th Anniversary. Among premier events, the excavation projects of the Korean War Casualties were result that dig corpse of 4,133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Area until last year. By the way, The analysis of data has not been arranged systematically in the North Korea Area.

Some warriors recordings are very insufficient level during major engagements in the North Korea Area. The Deokcheon Battle of the 7th Division and the Yeongwon Battle of the 8th Division which heavy casualties occurred did not receive illumination focus because of their tragic defeats. Therefore, this paper referred to basic data the excavation projects of the Korean War deads at North Korea Area. That is, the 7th Division estimates from minimum 1,802 persons to the largest 2,539 persons stationing 7 places and the 8th Division estimated from minimum 2,229 persons to the largest 3,222 persons. It is period mission to accompany with our bosom collecting national capacities at visual point that meet the Korean War 60th Anniversary Year.

In particular, the excavation projects of the Korean War about patriotic forefathers who died in battles in the North Korea Area is South-North common issues and periodic requests. Nevertheless, so far the excavation projects of the Korean War that was only relevant organization's concerns. Therefore, public relations pacification and sympathy formation are

important so that it's event is propelled continuously.

Also, overcomes long divides states of the Korea Peninsula and need by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measure for peace fixing by propelling materialistic business that enforce it's Demilitarized Zone in the North Korea Area preferentially.

In the North Korea Area, it has to note that can be symbolic business that wash product of east and west cold war and mutual cooperation conclusively.

Key Words: North Korea Area, the Excavation Projects of the Korean War
Deaths, Maps of Analysis Deaths Place, Casualties, Prisoner of
War, Deokcheon Battle, Yeongwon Battle, Roll of Honors, Total
Casualties in Battles, Estimate of Classification Casualties